

# 백석, 운명애와 민족어의 완성을 위하여

김재홍 · 경희대 교수, 문학평론가

## 1. 저무는 한 해, 폐시미즘을 위하여

겨울이 오고 연말이 되면 웬지 모르게 쓸쓸해지고, 심사가 사나와지는 건 유독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고, 뚜렷이 한 일도 없이 지낸 데 대한 자책감이며 후회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그럴 때면 문득 떠올라서 제게 위안과 힘을 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백석의 이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 바로 그 것입니다. 이 시를 읽노라면 세상에 저같이 별 볼일 없는 처지에 있으면 서도 자기의 운명을 긍정하고 나름대로 따뜻이 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분이 또 있구나 생각되어 새삼 위안과 용기와 희망이 실오리처럼 되살아 오르기 때문이지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 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木手네 집 헌 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친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더니 애구 자리에 누어서/ 머리에 손깍지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  
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쐐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  
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  
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텐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 때 나  
는 내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  
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인데/ 이렇게 하여 여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  
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  
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 아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어오는데 하이아니 눈  
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南新義州 柳洞 朴時逢方」전문

백석 시인은 누구이던가요? 일찍이 1912년 소월의 고향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 오산학교를 마치고, 일본에 유학, 청산학원 영문과를 졸업한 분이  
아닙니까. 1935년 조선일보에 시 「定州城」을 발표하면서 등장하여, 시집  
『사슴』(1936)으로 일약 중요 시인으로 부상한 분이시지요. 그러면서도 서  
울에서의 번소한 생활을 청산하고 함경도로, 만주로 떠돌면서 유랑 생활  
비슷하게 하던 쓸쓸하기 이를 데 없던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  
도 우리 민족의 토속적인 삶의 모습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향  
토어인 평북 방언을 문학어로 구사함으로써 민족적인 주체성을 고양하고  
문학적인 평등 정신을 실천하려 노력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른바 평안 방  
언이라는 변두리 언어의 중심부화를 통해서 사람의 삶이 지역적으로나 계  
층적으로 모두 평등한 것이며, 소중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보여 준 것이지  
요.

그런데도 광복 후에 고향인 북쪽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남쪽에서 실종 시인 또는 금기 시인으로 여겨지던 불우한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철한 계급 의식이 부족하니 북에서도 크게 대접받을 수 없었고,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 남한에서도 어이없이 월북 시인이 되고 만 게 아니었겠습니까. 실상 그리고 보면 이 땅 최근 백 년 동안 이렇게 어이없이 매몰되고 실종되어 버린 분들이 비단 백석을 비롯한 문인 몇 사람뿐이었을까요? 하니 새삼 백석의 이 시가 애달프게 마음속에 부딪쳐 오는군요.

실상 어떤 평론가는 이 시를 <폐시미즘의 절창>이라고 하고, 또 어떤 평론가는 <한국시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시 중의 하나>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하더군요. 그만큼 이 시가 한국적인 허무주의 또는 비극적인 세계관의 그 어떤 황홀한 비장미를 보여 준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적인 허무주의의 철연함과 함께 아름다운 그 무엇을 담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 시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싶습니다. 첫째 단락은 시의 화자가 어떤 사연으로 아내와 집을 잃고 부모 형제와도 떨어져서 추위가 닥쳐오는 낯선 거리를 방황하다가 어느 목수네 집 방 한 칸을 얻어 듣다는 얘기이지요. 둘째 단락은 그 방 안에서 혼자 쓸쓸하게 뒤채이면서 삶의 외로움과 슬픔, 비애와 탄식을 되새김질하는 모습입니다. 셋째 단락에선 사는 일의 덧없음과 고달픔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어떤 운명적인 큰 힘이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선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아니면 산 뒷옆에 바우셨에 따로 외로이 서서/어두어오는데 하이아니 눈을 맞을/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와 같이 자기 슬픔을 스스로 정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 할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 시는 <상실과 방랑 끝에 방 한 칸을 세들어 자리함→좌절과 절망 속에 뒤채이면서 죽음까지 도 생각해 봄→삶의 쓸쓸함과 덧없음이 운명적인 것이라고 깨닫게 됨→슬픔 속에 겸허한 자세로 운명을 궁정함→다시 힘을 내서 굳세고 깨끗하

게 살자고 다짐함>이라는 이른바 성장의 구성 또는 극복의 플롯을 지닌다고 하겠지요. 실상 절망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끝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구원의 방법이란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슬픈 긍정과 따뜻한 사랑 말고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최후의 적은 바로 자기이며, 자신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테니까요.

지상에 방 한 칸 얻어 목숨 붙이고 산다는 것, 그 살아가는 일의 고달픔과 쓸쓸함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 그리고 잘못 살아온 것 같은 지난날에 대한 부끄러움과 비탄의 심정을 스스로 고백하고 하소연하면서, 그래도 목숨 있는 그날까지 다시 굳고 깨끗하게 살아 보겠다는 운명에의 비장함이 처연하고 애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울려 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 2. 북방 정서와 유랑의 삶

우리 현대시사에서 북방 정서를 잘 형상화해 낸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함북 경성에서 두만강 주변의 정경을 잘 그려 준 김동환 시인과 이용악 시인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요. 평안도 지역 정서는 소월과 백석이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두 분은 평안 방언과 그 지역 사람들의 질박한 생명력에 바탕을 둔 북방 정서를 잘 드러내면서 우리 민족 문학의 자산을 풍요롭게 해 준 데서 그 문학사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전문

시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는 눈 내리는 겨울 압록강, 두만강 등 국경 지방의 이국적 풍정을 바탕으로 연애 감정을 잘 드러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끊임없이 눈은 내리고, 내려서 쌓이면서 지향 없는 마음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런 밤에는 쓸쓸히 혼자서 소주를 마시면서 나타샤, 그리운 이를 더욱 그리워하면서 하염없이 내리는 눈발처럼 어디론가 연인과 함께 떠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타샤와 나는/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라는 구절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는 백석의 인생관을 잘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그것이지요. 1930년대 후반 서울이 상징하는 세속적인 삶에 환멸을 느끼고 조선일보사라는 안정된 직장을 버리면서까지 만주로 어디로 떠돌면서 젊은 날을 보낸 백석 시인의 유랑인의 삶, 자유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석 시인처럼,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마을에서처럼, 그렇게 한세상 자유로이 낭만적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지요?

### 3. 시인의 불운한 운명성, 또는 사랑과 슬픔

사람의 한 생애는 어떠한가요? 아니 사람 중에서 유달리 사는 일, 감정에 예민하고 섬세한 느낌을 잘 표현해 내는 시인의 한 생애는 과연 어떠한가요? 한마디로 시인이란 불운한 운명의 표정성을 전광석화처럼 읽어내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고단한 삶의 과정에서 그러한 예감이 얼핏얼핏 스쳐 갈 때면 불운하던 시인 백석의 이 시가 떠오르고 불우 속에 살다 간 이 땅의 시인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있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매금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등등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셋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 아비와 마주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어가도록 태어났다 / 그리고 이 세상을 살어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짹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짬과 도연명과 라이넬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흰 바람벽이 있어」전문

그렇습니다. 인생의 테마는 사랑과 슬픔입니다. 사람이 운명으로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사랑뿐이며, 숙명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의 근본 속성으로서 슬픔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인은 영원히 사랑과 슬픔을 노래하면서 한세상 불운하게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게 아닌가 합니다. 사랑과 슬픔을 탐구하고 노래하면서 그것을 순금(純金)의 눈물로 단련하고 가치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의 숙명이라는 말씀입니다.

#### 4. 방언 활용과 문학사적 의미

백석의 시가 지닌 특징은 북방 정서와 방언 활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는 점일 겁니다. 이러한 북방 정서와 방언 활용은 서북 지방으로서 주변 부의 정서와 언어를 중심부의 그것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평안 방언의 다채로운  
발굴과 쓰임새는 남도의 향토색과 방언미를 살려 시적 성공을 거둔 김영  
랑(金永郎)의 경우와 대비된다는 점에서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한 순  
금 부분을 열어젖힌 성과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접시 귀에 소기름이나 소뿔등잔에 아즈까리 기름을 켜는 마을에서는 겨울  
밤 개짖는 소리가 반가웁다// 이 무서운 밤을 아래웃방성 마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있어 개는 짖는다// 낮배 어니메 치코에 꿩이라도 걸려서 山너머 국  
수집에 국수를 받으려 가는 사람이 있어서도 개는 짖는다// 김치 가재미선  
동치미가 유별히 맛나게 익는 밤// 아배가 밤참 국수를 받으려 가면 나는 큰  
마니의 돋보기를 쓰고 앓어 개짖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개」 전문

오리치를 놓으려 아배는 눈으로 나려간 지 오래다/ 오리는 동비탈에 그림  
자를 떨어트리며 날아가고 나는 동말랭이에서 강아지처럼 아배를 부르며 울  
다가 시악이 나서는 등뒤 개울물에 아배의 신짝과 버선목과 대님오리를 모  
다 던져버린다// 장날 아침에 앞 행길로 엄지 따려 지나가는 망아지를 내라  
고 나는 조르면/ 아배는 행길을 향해서 크다란 소리로/-매지야 오나라/-매  
지야 오나라// 새하려 가는 아배의 지게에 지워 나는 山으로 가며 토키를 잡  
으리라고 생각한다/ 맞구멍난 토키굴을 아배와 내가 막어서면 언제나 토키새  
끼는 내 다리 아래로 달아났다/ 나는 서글퍼서 서글퍼서 울상을 한다

—「오리 망아지 토키」 전문

이 두 편의 시에는 북방 정서와 함께 방언 활용이 특히 주목됩니다. 앞  
의 시는 서북 지방의 읊씨년스러운 밤 풍정이 방언 가락에 실려 그 운치  
를 더해 주지요. <접시 귀에 소기름이나 소뿔등잔에 아즈까리 기름을 켜는  
마을에서는 겨울밤 개짖는 소리가 반가웁다>에는 <등잔불>과 <개짖는  
소리>로 하여 고즈넉한 북방의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여기에 <김치 가재  
미선 동치미가 유별히 맛나게 익는 밤//아배가 밤참 국수를 받으려 가면>  
이 결합되어 기나긴 겨울밤의 미각적인 생활 감각과 낭만적인 풍정을 빚  
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즈까리/아래웃방성/어니메/치코/가재미선/  
아배/큰마니>와 같은 평북 방언이 어울려서 풋풋한 북방 정취를 더해 주  
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평북 방언이 아니었다면 이 시는 그 독특한

정서의 울림으로서 환경성이 감쇄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뒤의 시에는 이러한 평북 방언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리와 망아지·토끼 등 사람들과 친화력을 지니고 있는 온갖 종류의 금수들이 등장하면서 정서적 건강미를 돋우는 것도 이 시의 한 특징이지요. 특히 오리치를 놓거나 맞구멍 난 토끼굴을 막아서면서 야생 오리와 토끼를 잡는 모습은 산간 지방의 고유한 풍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평북 방언이 결합되어 북방적 야성미 또는 건강한 생명력을 활기해 주는 것 이지요. <오리치/아배/동비탈/동말랭이/시악/아츰/엄지/매지/새하려/모다/온나라> 등과 같이 체언과 용언·부사어 등에 있어서의 평북 방언 활용은 향토적 생활 감각과 서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생명감을 돋워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실상 이러한 방언의 능동적 활용으로 북방 정서가 더욱 탄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지역적 구체성과 민족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됨은 물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방 정서와 평북 방언의 적극적인 활용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백석의 문학적 주체성의 발현이면서 동시에 평등 정신의 능동적인 구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공통어 또는 표준어와 구분되는 어느 지역 특유의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학적으로는 한 언어가 외적이거나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분화되었을 때 그 지역 또는 계층의 언어 체계를 총칭한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방언은 한 나라의 민족어를 구성하는 기본 자질에 속하며, 한 지역의 방언은 다른 지역의 방언과 서로 대등한 위치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어도 실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사투리, 즉 경아리를 공식화한 것이란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닙니까. 이 점은 나아가서 하나의 민족어가 다른 민족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도 대응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가 모여서 세계의 언어를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한 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의 방언들이 모여서 총체적인 민족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제 고장의 지역 말, 즉 방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은 삶의 주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적 평등의 정신을 구현 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사명 의 하나가 민족어의 완성에 있다는 하이데거의 말에 비춰 볼때도 백석의 이러한 노력은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어의 심미적 가치, 정서적 가치에 섬세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변부의 말을 중심부로 이끌어 올리려는 시적 평등 실현의 노력을 보여 준 데서 백석 시가 지닌 우수성 과 문학사적 위치가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적 노력이야말로 주변부의 삶을 중심부화함으로써 주변부로서의 소외를 극복하고 만인 평 등사상을 실천해 가는 소중한 노력이기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